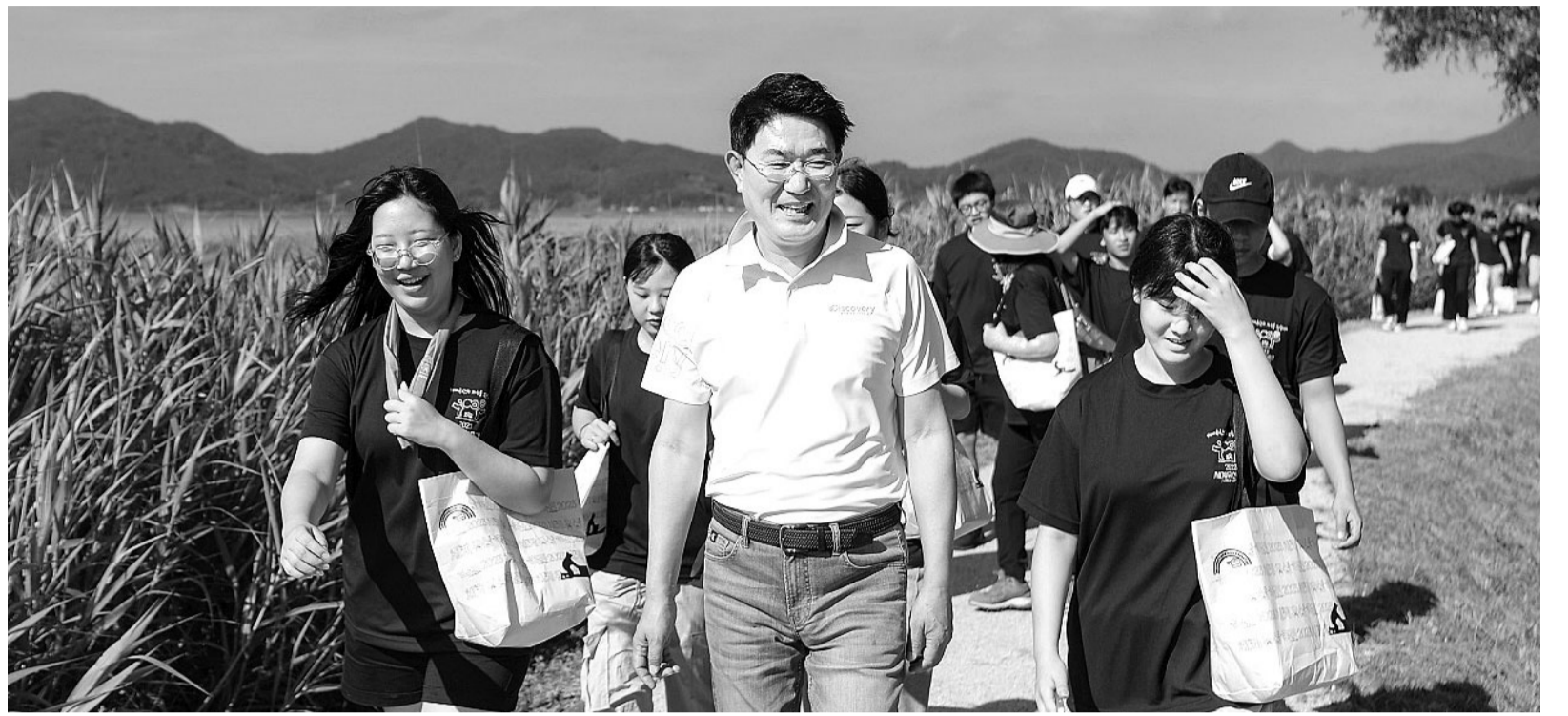


사람·자연·세대의 어울림 '순천 세계유산축전' 막 올랐다

이달까지 선암사·순천갯벌 등서 전시·공연·체험 등 행사 다채 노관규 시장, 청소년들과 걷기 행사...갯벌 보존 중요성 등 대화

'2023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이 지난 1일 개막하며 한 달 여정을 시작했다. 순천시시는 이날 지역 청소년 70여 명과 장산소공원을 출발해 대대포구에 이르는 갈대길을 걸으며 축전의 문을 열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청소년 참가자들과 함께 걸으며 순천갯벌 가치 보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2023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은 '일류순천, 세계유산을 담(滿)다'를 주제로 오는 31일까지 선암사와 순천갯벌 일원에서 열린다. 축전에서는 전시, 공연, 체험 등 유산의 가치와 즐거움을 담은 행사를 선보인다. 오는 4일 오후 6시 30분 순천만습지 잔디광장에서 '올림'을 주제로 하는 가치 선포식이 열린다. 주제공연과 '올림의 타종' 행사 등을 통해 순천 세계유산만이 가진 특별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세계문화유산 선암사의 산길에서 세계자연

유산 순천갯벌로 이어지는 사람과 자연, 세대가 함께 하는 순천 세계유산의 가치를 선포한다. 주제공연 외에도 '마크툽(MAKTUB)'과 '재즈 스트라'(JAZZSTRA) 등의 축하 무대도 마련됐다. 선포식 이후 주말 동안에는 '공존버스킹과 콘서트', '산사미식회', 해설가와 함께하는 '공존 로드&토크' 등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임 위드(with) 비움(프레셔싱)', '공존화랑', '축전 스테이' 등이 상시 운영된다. 축전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세계유산축전 누리집(scwhf.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세계유산이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8월 한 달 내내 순천 세계유산축전을 만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노관규(가운데) 순천시장이 지난 1일 개막한 '2023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에서 청소년 70여 명과 '순천만 어서길'을 걷고 있다. <순천시 제공>

광양 중마시장 수산물 구입객에 환급 행사

해수부, 지원 사업...6일까지 1인 지역상품권 최대 2만원

광양시가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중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고객에게 1인당 최대 2만 원의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환급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28개 시장이 선정됐다. 광양시는 중마시장이 선정돼 3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갯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은 포함되지만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업체는 수산물 판매점 및 회 포장 판매 업소 등 30여 점포로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환급 절차는 고객들이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 후 중마시장 공유주방에 설치된 행사 부스

를 찾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원(행사 동안 1인당 최대 2만원)을 은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양시는 수입산 구매내역을 국내산으로 인정해 환급하는 경우와 제의 대상 품목 환급, 중복 지원 등 부정수급 지도단속과 위생점검을 통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보탬 계획이다. 이화업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최근 폭염과 장기간에 걸친 집중호우로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위축돼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전통시장으로 고객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곡성군 '행복 지표' 다음달 초까지 개발



곡성군이 지난 1일 개최한 '맞춤형 행복 지표 개발 연구' 중간 보고회에서 이상철 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중간 보고회...추진 경과 등 공유

지역민 맞춤형 '행복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곡성군이 중간 보고회를 열어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곡성군은 지난 1일 맞춤형 행복 지표 개발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행복 지표는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이라는 민선 8기 군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고회에는 이상철 곡성군수와 윤영규 곡성군 의회 의장, 의원, 군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개발 용역을 맡은 이재경 국민총행복연구소 소장이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의견을 나눴다. 곡성군은 군민이 직접 행복 지표를 그릴 수 있

도록 지난 5월 50여 명과 원탁 토론회를 벌였다. 지난 6-7월 두 달 동안은 읍·면을 찾아 170여 명의 군민과 면접 방식으로 의견을 나눴다. 국민총행복연구소에서는 이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했다. 지역사회 통합, 청소년-청년, 여성 행복, 고령층, 건강, 먹거리, 주거환경, 지역에 대한 자부심 분야 등에서 곡성군만의 특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곡성군은 그 제안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초까지 맞춤형 행복 지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2차 군민 원탁 토론회, 전문가 자문, 최종 보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지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

순천 위생 음식점 '안심식당' 신청하세요

25일까지 83곳 모집

순천시시가 오는 25일까지 신규 '안심식당' 83곳을 모집한다. 안심식당은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식사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다.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는 도구를 갖추거나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종사자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안심식당에 지정된 안심식당 표지판과 식사 문화 개선을 위한 물품을 받는다. 순천시는 신청 음식점을 찾아가 적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안심식당 지정에 희망하는 업소는 순천시청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식품위생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내면 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에너지 자립섬' 여수 동고지 마을 '탄소중립' 앞장

태양광 설비로 전기 자가 공급 LG화학·실천연대와 발전 협약 11가구에 난방 필름 시공 지원

여수 첫 '에너지 자립섬'인 남면 동고지 마을이 2050 탄소중립에 앞장선다. 에너지 자립 마을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립공원공단 명품마을' (2014년)로 꼽힌 남면 안도리 동고지 마을은 지난 2021년 여수시·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동 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추진했다. 아홉 13가구 중 12가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3kW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며 에너지 자립마을에 동참했다. 여수시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사업비 각 5000만 원을 부담했다. 동고지 마을 주민은 대부분 고령 여성들로,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아끼려 조명을 잘 켜지 않는 탓에 섬마을에 해가 지면 온통 캄캄해지곤 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동고지 마을은 각종 개발 사업이 제한돼 있어 주민 불편이 잇따르기도 했다. 여수시는 수입원이 다양하지 않은 주민들이 난방비와 냉방비를 덜 아꼈으면 하는 취지로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집마다 설치된 3kW 태양광 설비는 평균적으로 한 달(하루 4시간) 360kWh 전기를 생산한다. 여춘 2인 가구 전기요금은 사용량 250kWh 기준 3만



여수시(시장 정기명·오른쪽 네번째)와 LG화학, 탄소중립실천연대가 지난 1일 '에너지 자립마을 발전 협약'을 맺고 탄소중립 실천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에 동참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5000원 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월 5만 원 상당 사용량인 320kWh는 태양광 생산 전력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동고지 마을 주민들은 할인된 기본요금과 전력 기금을 합해 월 7000원 안팎만 부담하면 된다. 여수시는 에너지 자립마을인 동고지 마을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난 1일 ㈜LG화학, 사단법인 탄소중립실천연대와 발전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고지 마을 11가구에 에너지 효율을 높여줄 난방 필름 시공을 지원한다. LG 화학이 사업비 2000만 원을 대고, 탄소중립실천연대가 시공을 맡는다. 여수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 기

반을 강화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에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명훈(㈜LG화학) 주제 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며 "동고지 마을처럼 상대적으로 열악한 섬 지역 이웃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협약은 COP33 유치 기반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자립마을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섬 만들기' 순조

금오도 직포 등 3곳 특성화 사업 선정...섬별 10년간 50억 투입

여수시가 추진하는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섬 만들기'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섬 지역 특성화 사업'에 지역 남면 금오도 직포, 삼산면 초도 의성과 대동 3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면서 지속가능한 섬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섬지역 특성화 사업'은 섬 주민 주도의 소득사업 및 마을특화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섬별로 10년간 최대 50

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앞서 행정부는 전국 188개 특수상황 지역 내 개발대상 섬 중에서 17개 섬의 1단계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9개 섬을 최종 선정했다. 여수시는 남면과 삼산면의 3개소로 최다 선정을 기록했다. 이로써 남면 금오도 직포, 삼산면 초도 의성과 대동은 주민 역량기반 조성인 1단계 사업으로 2025년까지 섬당 4억원씩 총 사업비 12억원이 투

입될 계획이다. 지난해에 선정된 남면 안도와 화태도는 올해부터 섬당 4억원씩 투입, 섬 특성과 사업이 추진 중이다. 투입된 사업비는 주민이 주도하는 콘텐츠 개발과 마을 주력사업 발굴·선정 및 확장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주민 자립역량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남면 금오도와 삼산면은 다양한 문화와 생태자원을 보유한 곳으로 인프라 확충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한 섬 조성으로 '2026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에도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 무인민원발급기 11대 추가 설치

영락공원·시민회관·농협 등

여수시가 올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이용객 불편을 덜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사진) 11대를 새롭게 설치했다. 새로 발급기가 설치된 행정기관은 영락공원과 시민회관 면·동 사무소, 농협 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되는 증명서는 주민등록·가족관계·토지 등 13개 분야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119종이다. 인감 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관공서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건물 밖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신속·이전하는 문수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여수시에서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40대가 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운영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